

# Yullin Newsletter

MAR.

3

열린교회 신문 2022.3 vol.321



말씀솔루션

## 세상 끈끈이에서 뜯어낸 마음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기근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에서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시냇물을 마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냇물을 그만 마르게 하신 후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서 공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여자에게 무어를 내놓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일러줍니다.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렇게 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에게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가루와 기름에 꽂혀있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딱만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떡을 씹고 삼켜 넘기는 순간 희망도 함께 넘어가는 비참한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주었더니 그 궁핍한 중에 섬긴 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어쩌면 아주 작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끈끈이에서 뜯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없는 자를 섬김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있게 하려 하심이고, 무능한 자를 섬김의 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능력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진 마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

〈인생의 밤을 지나는 빛의 자녀들〉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궁핍한 땅에 내린 은총/궁핍한 자를 섬기게 하심/그는 하나님이시로다/침체의 밤을 벗어나라/사명으로 돌아가라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 목적이 있는 은혜



김남준 담임목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 1:29

###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빌 1:29).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곧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과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증가됩니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머물도록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교회와 세상을 위한 고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신자는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신 고난은 이미 성취하신 고난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고난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께서 교회 안에 남겨 두신 고난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이 고난은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짊어지는 고난입니다. 신자는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진 상태에서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지불하기를 바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교회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완성하실 그날까지 누군가는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아픈 것을 나의 아픈 것으로 여기고, 교회의 부족한 것을 나의 모자란 것으로 생각해서, 나를 희생하고 바쳐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로, 신자는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교회의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구겨진 곳을 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 사랑하기에 고난받음

빌립보는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빌립보가 로마를 생각나게 하는 도시라고 말하지 않느냐? 교회는 하늘나라를 생각나게 해주어야 한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답게 복음의 통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중 한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올 때 우리가 죽기까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마 16:24-25).

누구나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매우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목적을 따라 주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이기에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서 채워가며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



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참고,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견딤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복음을 믿는다는 것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허무한 것을 붙드는 대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부

활하신 주님을 만났고(행 9:4-5), 신령한 세계도 보았습니다(고후 12:1-4).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난도 넘쳤습니다(고후 1:5). 그러면 우리는 ‘어디 무서워서 은혜를 달라고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쓴 바울의 짧은 서신 안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감옥 속에서 불우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신자에게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이기도록 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살도록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 맺음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끝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목적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 담임목사 동정

- 2.28-3.2 노량진교회 사경회
- 3.5 피택임직자교육
- 3.20 정기당회
- 3.24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경회 특강
- 3.27 정기제직회

###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기독교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기독교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 나의 목자'
- 포항기독교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기독교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기독교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기독교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기독교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의 강가로'

### 인터넷 설교방송

· 기독교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2022 교구섬김조직

# 여섯 교구, 한 교회를 세우다



새해를 맞으면 온 교인은 담임목회자의 심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모 따로 청년 자녀들 따로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관리가 필요한 지체들은 1차 때 부여받은 미션(주로 설교테이프 등) 수행 후에 2차, 3차 심방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심방을 받았고,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첫돌을 맞고, 또 둘째가 태어나고...하는 생애 이벤트마다 담임목회자의 심방을 통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초기 열린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의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목양의 규모도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목사 없는 양갈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목양해주는 교회가 되고자 열린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목양 시스템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는 교회들에서 배우고 그것을 열린교회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는 치열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리잡은 목양의 그릇은 교구체제입니다. 지역을 주변수로 고려해서 (장년 기준) 여섯 교구로 나누어 각 교구장을 맡은 교역자에게 일차적 목양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2018년도에 나뉜 교구가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 임원으로 섬기며 올 한 해 교회를 세어나갈 섬김이들을 소개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고, 또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체제 안에서 그 좋은 점은 활성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키는 연구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선의 것으로 선택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은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그것에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변해도 열린교회에 찾아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목양의 정신은 계속되기를 믿으며 바라봅니다. - 편집부

1교구	2교구	3교구
<b>교역자</b> 김동기 목사, 김미영 전도사 <b>총팀장</b> 최영재 <b>총무(남)</b> 안성철 <b>총무(여)</b> 고영미 <b>회계</b> 오희열 <b>서기</b> 안지영	<b>교역자</b> 류요한 목사, 정경아 전도사 <b>총팀장</b> 김범일 <b>총무(남)</b> 이정태 <b>총무(여)</b> 김명정 <b>회계</b> 장현미 <b>서기</b> 도현호	<b>교역자</b> 박재현 목사, 최선미 전도사 <b>총팀장</b> 김재현 <b>총무(남)</b> 강성만, 허신구 <b>총무(여)</b> 임채자, 이경옥 <b>회계</b> 유주화, 최인선 <b>서기</b> 김동응
4교구	5교구	6교구
<b>교역자</b> 김성구 목사, 강성경 전도사 <b>총팀장</b> 박희준 <b>총무(남)</b> 이계상 <b>총무(여)</b> 홍영이 <b>회계</b> 황선경 <b>서기</b> 장정희	<b>교역자</b> 최성기 목사, 곽혜정 전도사 <b>총팀장</b> 장정수 <b>총무(남)</b> 김영규 양석주 <b>총무(여)</b> 허혜숙 김효은 <b>회계</b> 유지연 <b>서기</b> 최명이	<b>교역자</b> 이성도 목사, 조희숙 전도사 <b>총팀장</b> 이동훈 <b>총무(남)</b> 유병재 <b>총무(여)</b> 남윤경 <b>회계</b> 박미진 <b>서기</b> 백승태

## 교회소식

### 제33기 새생명전도학교

- 주제 : "코로나로 어려운 전도? 함께 하면 쉬운 전도"
- 내용 : 관계 전도법, 행복 전도지 사용법, 전도의 이론과 실제
- 일시 : 3월 5일(토) ~ 3월 26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간)
- 접수 : 교회 홈페이지 또는 1,3층 로비

### 상반기 영아부 예비 학부모 설명회

- 일시 : 3월 6일(주일) 오후 4시
- 주제 : "우리 아기 첫 예배 어떻게 준비 할까요?"
- 방법 : 온라인(영아부 유튜브채널)

### 사랑부 교사/학부모 세미나

- 일시 : 3월 13일(주일) 오후 2시
- 주제 : "장애인 인권 - 따로 또 같이 함께 하기"  
(장애인 인권과 성문제)

- 강사 : 최혜선 집사(경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 강사)
- 장소 : 별관 교육실4
-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사랑부 유튜브채널)

### 제49기 목요 교리반

- 일시 : 3월 17일(목) ~ 6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 대상 : 성장반 수료자 이상
- 신청 : 교회 홈페이지 또는 1,3층 로비

### 3월 주요사역

- 5(토)-26(토) 33기 새생명전도학교
- 17(목)-6.2(목) 49기 목요 교리반
- 20(주일) 정기 당회
- 26(토)-5.21(토) 23기 등불학교
- 27(주일) 정기 제직회



## 3월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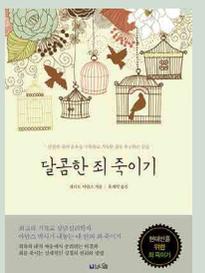
### 달콤한 죄 죽이기

제이 E. 아담스(유재덕 역)/브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반영한 이 책은 죄와의 내적 싸움에서 승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특별한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쉽게 털어놓거나 해결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 용기를 잃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당신 뒤에 서 계신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승리를 도울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교사학교 후기

# 영혼에 대한 헌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승하 청년부  
seung068@naver.com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예배당 화면에 띄워져 있는 교회 학교 교사모집 광고에 저는 한동안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고, 광고 화면만을 응시한 채 한참을 예배당 한편에 앉아있었습니다.

23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시작했던 고등부 교사 섬김,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는 동안 제 영혼에 솔하게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섬겼던 그 때가 떠오르며 제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감히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누렸던 은혜를 추억하며 그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시작하는 섬김인 것만 같아 한참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제게도 다시 한 번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하야,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가슴 저미는 물음 앞에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곧이어 집으로 돌아가 교사 섬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망설임 끝에 호기롭게 지원은 하였지만, 오랜 기간 교사 섬김을 내려놓았던 저였기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부서 공동체와 아이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니 알 수 없는 막막함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혀 없던 상황을 전 교회가 맞이하게 되며 열린교회의 교회학교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아이들을 지도·목양 할 것이기에 제대로 된 목양은 교사와, 그 새로운 사역의 흐름을 제 자신이 따라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교회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교사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을 차차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1주차 첫 시간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함께 섬기게 된 선생님들과 간단한 인사 및 교제를 나누며 교회학교 교사로서

의 다짐과 마음가짐을 나누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돌파의 위협으로, 교사교육 또한 대면이 아닌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대면모임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함께 섬길 선생님들과는 큰 어려움 없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참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에는 ‘교사 역할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김민성 전도사님을 통해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 특별히 열린교회 교회학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심방’ 사역에 대해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많은 양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교사는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예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아이들을 향한 ‘목양의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 받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인 관계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 제가 속한 (소년부) 부서 사역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 소년부는 특별히 아이들의 ‘회심:하나님과과의 만남’과 교사들의 ‘공동체적 연합’을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고 한해의 사역을 진행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사역의 주요일정과 세부사항들도 하나하나 짚어 주시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년도 교사교육이 참 특별하고 유익했던 이유가 3주차 때 진행되었던 끝품(끝까지 품는)교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지식을 전문 선생님들께 배움으로써 앞으로 목양할 아이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끝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수 강의 및 부서별 추천 강의를 먼저 듣고, 강의를 진행하신 강사님께 실제 적용질문을 하며 교육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단순 목양을 넘어 맡겨진 아이들을 보다 더 깊이 있고 지혜롭게 목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할 아이들의 영혼을 향해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게 해주었기에, 수고해 주신 교회학교 상담위원회 끝품 선

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4주차 교육은, ‘열린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주제로 김경해 전도사님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먼저는 전도사님의 살아 숨쉬는 간증을 통해 열린교회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성도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눈물과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현재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 누리려 하는 것만 많은 제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깊이를 울렸던 잊지 못할 전도사님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목양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섬김이도 사람이기에 변화되지 않고 늘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지칠 뿐 아니라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기 마련인데,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를 돌아보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안으로 인도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바라보는 일이 필요함을 피력하실 때 제 마음은 뜨거워졌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양에는 한계가 없고 오히려 ‘목숨을 버리는 목양’만이 영혼을 참된 회심과 변화로 이끄는 길임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진정으로 제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목양사역은 사그러 들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에 제 마음은 회의를 불신이란 오�히려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헌신은 계속되어야 함을 감히 바라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각 부서 사역자분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 때로는 유능함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최전선에서 사역자의 손과 발이 되어 아이들의 영혼에 닿을 수 있는 것은 교사이기... 거룩하고도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교사분들이 은혜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

교사·학부모세미나 (취학부)후기

# 회심을 위한 동역자들



남미은 장년2교구  
73545@hanmail.net



어느날 첫째 아이의 말이였다. “엄마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아이가 기특해 보여 그 앞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엄마도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게”라고 다독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첫째 림이가 벌써 12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

여러 해 전 귤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자녀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회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였다. 그때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지 몰랐다.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고 실제로 중학교에 가기 전의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엄마로서 세 아들을 위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좀 더 간절히 아이

들의 회심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맛보게 해달라고 울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되었다. 이제라도 더욱 간절히 세 아이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아이들과 이러한 마음을 나누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후로 회심은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러던 중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다음세대의 신앙(회심)교육을 주제로 교사·학부모 세미나가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이들의 회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사님의 강의는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써야 하는지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 같았다.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그리고 세 아

들이라는 불평과 핑계로 게을렀던 지난날들의 모습에 회개가 깊이 밀려왔다.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을까 하는 송구함에 더욱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세 아이의 회심을 위해 달려 나가길 작정하고 보니 홀로 기도하고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주위에는 든든한 기도의 지원군들이 있었다. 교회학교의 교역자, 그리고 각 부서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동역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세미나 때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3절의 믿음의 역사·사랑의 수고·소망의 인내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간절히 마음을 울려 드릴 것이다. ☆

교사·학부모세미나 (미취학부) 후기

#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주는 자리, 가정예배



홍혜경 장년4교구  
honghk81@nate.com



‘올해는 꼭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큐티책을 사서 나눠 보기도 하고, 아이들 교회학교에서 진행하는 가정예배 순서지도 따라서 해보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곤 했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기도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린 기도 제목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목사님, 전도사님과 심방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나 빠짐없이 가정예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도제목들도 빠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째서 가정예배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머리로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실천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실패감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정예배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외면하며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지소영 작가님의 강의는 그동안 내가 왜 가정예배에 실패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려온 가정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마치 미션 수행하는 기분으로 행해진 예배였으며, 소집하듯 억지로 불러 모아 앉혀 놓고 일방적으로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듣고, 아빠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입장에선 그냥 그렇게 일방적인 ‘말하고 듣기의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은혜나 높도 없었던 것이죠.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예배는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제자훈련의 장소이며 매일 모여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기도하고 죄의 문제는 함께 싸워주는 자리라고 하신 부분에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이들의 삶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153 가정예배’의 방법 또한 가정예배 초보자인 제게 너무 유익했습니다. 성경 1장 읽기, 감사제목 5가지, 기도제목 3가지. 강의를 듣고 큰 도전을 받은 제가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 이제 함께 가족예배를 드려봐요” 하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함께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들과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우리의 올해 첫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유치부 새싹편지를 보며 큰아이가 성경구절을 읽고, 찬송은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교회학교 찬양이 아닌 찬송가를 함께 찬양한다는 사실만으로

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빠의 성경말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감사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가지의 감사제목을 나누는 일이 처음 해보는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꽤나 진지하게 자신들의 감사제목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코로나검사 용감하게 받게 해주심 감사/결과가 음성이나와서 감사/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동생이 있어서 같이 놀 수 있어서 감사/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작은아들)**검사 잘 받게 해 주셔서 감사/엄마랑 형아랑 즐겁게 요리하는 시간 감사/형아가 빨리 나아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엄마가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병원 갈 때 버스 즐겁게 타게 해 주셔서 감사

아이들의 감사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의 큰 감사제목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대로 감사제목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가정예배에 발을 내디딘 초보이지만, 가정예배를 통해 만나시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감격을 잊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졌으니 앞으로 쭉쭉 뿌리내려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

교사·학부모세미나 (청소년부) 후기

# 중등교사 외길인생 10년 : 답을 찾다



김요섭 청년부  
joseph\_keum@naver.com

아무 것도 모르던 20대 초반, 무작정 찬양팀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중등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흘러 저는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이젠 너무 많아 생각도 나지 않는 수많은 주일 아침을 중등부실에서 시작했고, 여러 분의 중등부서 담당 목회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겨울, 여름 수련회 때는 어김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따라가 아이들의 회심,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10년째인 교사학부모 세미나, 강산이 변하는 10년, 이제 딱 열린교회 중등부 교사 10년을 채운 저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 있던 게 아니었어요. 박상진 교수님은 이 세대를 본받는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차별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사가 함께 연계하면서 자연스러운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도, 세상에도 속했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학교 학원에 가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는 가기 싫은 곳, 교사는 귀찮은 존재, 교회 가라 강요하는 엄마의 잔소리는 항상 귓전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성육신’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들 변화의 열쇠는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지만, 최소 10살 차이가 넘는 이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 마치 어떤 미전도 종족을 연구하듯이 이 아이들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부터 시작해 이 아이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값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중등부 친구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성세대와는 너무도 다른 가치관, 무엇을 하든 반항적이고 뼈뚫한 태도, 통신기기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너무도 다른 문화... 문득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기억해보니, 저는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 이 친구들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 그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문화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박상진 교수님이 강조하신 사명감으로, 열정으로, 빠진 날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빠지지 않고 중등부 섬김에 나갔었

습니다. 소통을 거절하는 외면을 당할 때도 애매한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식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받는 상처처럼, 당연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들과 정면 대결했습니다.

신기한 건 이 청소년부 친구들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교사가 열심히 섬기는지, 자기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다 보고 있고 다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 9년을 채웠던 작년, 저는 비로소 조금씩 열매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맡았던 반 친구들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육신하시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는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곳에서 놀라운 희망이 시작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교사의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성육신의 태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교사생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교회공동체에 속해 “나는 그리스도 인이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 탁함 받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열린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 희생과 열정으로 양육 받고 말씀의 꿀을 먹고, 기도의 생수를 마시며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가 기독교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반란 말입니다. ☆

경주자(교역자칼럼) 2

# 삶의 명랑함을 기대하며



조희숙 장년6교구 담당전도사  
hs4848@hanmail.net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도가 센 어머니 밑에서,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에게 두 번의 사기를 당하시고는 예수쟁이는 사기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에 어려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선배의 죽음으로 인해 공업화학과 교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여성경공부'에 참석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해 힘들게 지내왔던 시기가 있었기에 대학생활에 대한 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5장 말씀을 읽어가던 중,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아무 죄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게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음으로 느껴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꿈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와 꽃들이 춤을 추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삶이라는 생각에 전공(고분자공학과)과는 상관없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한 교구를 맡아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자리에서 오늘도 심방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만나면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며 다녀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자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최근 사경회와 주일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삶의 명랑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지하방에서 자취하며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떡볶이도 해먹이고, 비빔밥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금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명랑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고, 믿음도 성숙했고, 매일 매 순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수모를 겪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순수함에 있어서는 그때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니지는 않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낌없이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

영유아부

# <세빛교실>을 소개합니다



이지연 유아부담당전도사  
jiyeon9309@naver.com

작년 8월, 교회학교 교역자들은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로 나뉘어 교회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분당, 강남 경산까지 교회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탐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코로나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적용한 교육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탐방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며 도출한 교육 프로그램이 '세빛교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부터는 등불학교를 통해 사회적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유아기 아동들에게는 주일 예배 시 이루어지는 설교와 공과 외에 더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필드가 없었습니다. 본 연령대 아이들에게 성경적 개념 교육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고, 방법적으로도 예배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연령대에 특화된 활동들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하면 더 효율적이겠다고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생각과 마음들로, 제1기 세빛교실이 3월 26일(토)부터 토요일마다 3주간 진행됩니다. 세빛교실의 교육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영유아 활동입니다. 영아부에서는 3세, 유아부에서는 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실에서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을 주제로 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오감, 반복, 모방, 경험 등 학습하는 아이들 연령에 맞는 특별

활동을 통해 창조-타락-구속의 역사를 몸 전체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학부모 교육입니다. 세빛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담임목사님의 저서 <아이야 널 위해 기도할게>를 주교재로 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비결,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진정한 회심의 비결에 대한 주제강의를 듣습니다. 이후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모임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빛교실은 이제 첫걸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좋았던 점들은 더 탄탄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빛교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어쩌면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교사들의 많은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3주 동안 빠짐없는 참석을 결심해야 할 부모님들의 수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신다면, 세빛교실을 통해 작은 영혼들의 믿음이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일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묘목이 아니었던 거목은 없습니다. 어린 새싹들은 진리와 사랑의 양분을 먹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갑니다." (교사 리바이벌 중)

어린 아이들도, 아이들의 나이만큼 어린 가정도 진리와 사랑의 양분을 먹고 믿음의 거목으로 뿌리내려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세빛교실이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내려지는 진리의 물을 주고 사랑의 거름을 섞은 시간이 되길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바라봅니다. ☆

## 새가족

### ▶▶ 장년

- 황혜경(75) 김도훈(74)
- 정성윤(79) 이해선(80)
- 이정민(85) 김영태(80)
- 이보람(86) 남민경(81)
- 이주인(89) 서다운(84)
- 박진희(92)
- 정유정(81)
- 배경화(78)
- 송상민(76)
- 진경숙(76)
- 황순원(86)
- 이복실(56)

### ▶▶ 청년

- 양지은(99)
- 편준범(94)
- 김신승(90)
- 박지영(95)
- 배미화(92)
- 문성현(90)
- 이세린(96)
- 송유진(92)
- 이상준(94)
- 이세은(93)
- 김만배(88)
- 김지수(96)

## 포토에세이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에세이

#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셨습니다!”

김지연 장년5교구  
k6590280@daum.net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새해에도 함께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가 너무 두려웠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구역식구들과 대면 예배 참석에 대해 고민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나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최근 예배 가운데 확진되신 분들이 발생되었지만 N차 감염으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최근 건강하던 내 몸에 감기 증세가 발생한 점이 너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에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안심시키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몸은 더욱 더 아파져서 주일날 온라인 예배 후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았습니. 그날 밤 남편은 아픈 저의 증세를 보고 아무래도 확진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럼 격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남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하나님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직장도 가족,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되뇌이며 그 집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제가 들었던 말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셨습니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음과 동시에 직장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N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떨리는 심정으로 직장에 소식을 알렸고, 이후 저는 하루아침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방에 혼자 격리되어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두려웠던 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분명 나로 인해 직장에도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직장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있었던 남편과 아이들도 격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걸려서 한 달 넘는 시간을 격리하게 되는 일이 매우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화요일, 홀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선지자 450명을 이긴 엄청난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에 도망가 로템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고 잠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삶을 제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길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따뜻한 손길로 제 눈물을 닦아 주셨고 반드시 저와 모든 환경을 지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 주변의 가족, 지인, 직장의 모든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격리기간 동안 지체들의 많은 도움과 기도와 위로를 받으며 쉽고 홀로 있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막할 것만 같았던 격리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더해지자 오히려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저를 더욱 자라게 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중 누구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을 지키시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 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

### 곰곰이 생각

## 감옥과 지옥의 차이를 묵상하다가...

글·그림: 나동훈  
gonggom2@designzip.co.kr

감옥은 악이 가득하지만 지옥은 공의가 가득하다.



감옥은 시간이 있지만 지옥은 시간이 없다.



감옥은 교정이 목표지만 지옥은 심판이 목표다.



다시는 뽕소니 운전 안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 새공과 소개 /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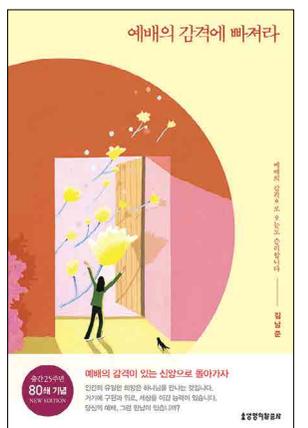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예배 생활일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해 예배실 인원은 제한이 되고,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를 불안감으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었습니까? 지난해 말 8주간에 걸쳐 ‘예배의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설교 시리즈를 들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라는 말은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숙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

지만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형식적인 의무 생활에 더 가까워졌고,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예배의 경외심마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설교를 통해 흐트러진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역(순) 공과를 통해 그간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1997년에 출간되어 많은 신자들의 예배를 일깨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성장반을 통해 배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2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영적 무기력 속에 빠진 많은

신자들이 다시 예배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책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이 책을 구역(순) 지체들과 함께 읽고 나누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 주고, 예배의 수준은 신자의 삶에 묶이니, 신자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번 공과를 통해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목양센터) ☆



만남 품은 열린교인

#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최해진 장년3교구  
chol0307@hanmail.net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믿지 않는 가정과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고2 때부터 세상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결국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시댁의 완강한 반대로 결혼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부모님 몰래 교회에 보내고, 저는 시댁의 반대와 직장을 다니는 핑계, 게으름으로 마음뿐, 합리화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관계와 삶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이 불현듯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감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기도제목을 품고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날은 아들이 폐루에 단기선교를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그 곳에서 부모의 신앙을 위해 기도제목을 내고 합심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 가정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열린교회에 다니고 계셨던 집사님은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시며 북콘서트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책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깜깜한 곳에 자신을 가두고 긍정이 없이 사는 저에게 "말씀이 있는 빛으로 나오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전해 준 집사님의 인도로 저는 2021년 3월에 열린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공부와 성장반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것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저에게 모든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한 주 한 주 말씀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절한 기도가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장반 과정 중에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던 저는 솔직하게 그 문제들을 나누었고 전도사님은 저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때로는 두 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그동안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복받치는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하고 나면 주변을 보는 시각이 변해서 감사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다져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행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녀의 영혼에 관한 관심보다 그저 공부를 통해 인정받는 것과 성공하기에만 집중했던 시간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라고만 하고 부모로서 진정한 분이 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과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삶을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생겨난 이 소중한 마음에 감사 또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저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담임목사님의 눈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전해지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든 것을 덮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 앞에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반을 마치고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영아부 보조 교사 섬김을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계속 못 하겠다는 이유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이 귀한 섬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드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시작한 영아부 섬김은 벅차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상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이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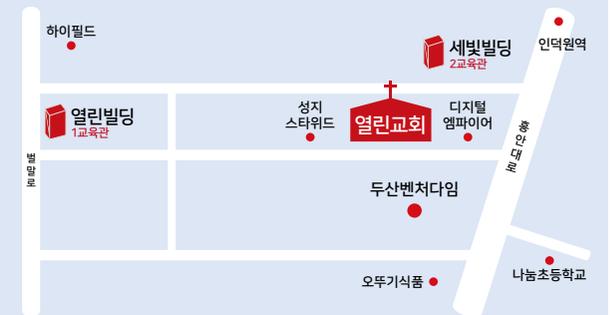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